

##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과정 자신감과의 관계

박창승, 고영주\*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Chang Seung Park, Yeong Ju Ko\*  
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과정 자신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의 자료는 2017년 6월 13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 2학년 학생 129명이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 대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3.45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3.55점, 간호과정 자신감은 3.68점이었다. 간호과정 자신감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r=.572$ ,  $p<.001$ ), 비판적 사고성향( $r=.488$ ,  $p<.001$ )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었으며, 설명력은 32.2%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과정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과정 자신감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변인을 규명하고 추후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제언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process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s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13th 2017 to June 30th, 2017. Informed consent was received from 129 students who were in their second year of nursing colleg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18.0 program. The score fo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as 3.45, the score for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55, and the score for nursing process confidence was 3.68.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cess confide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 $r=.572$ ,  $p<.001$ )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r=.488$ ,  $p<.001$ ). The factor affecting the confidence in the nursing process wa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32.2%). Educational methods based on build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re needed to enhance the nursing process. There are limitations in discus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due to the lack of prior research. Further study is needed to confir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the relationships it revealed.

**Keywords** :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cess Confidence,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Yeong-Ju Ko(Cheju Halla Univ.)

email: yjko@chu.ac.kr

Received July 10, 2019

Accepted October 4, 2019

Revised August 20, 2019

Published October 31,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질 높은 간호 요구도 증가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직면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있다[2]. 간호에서 문제해결 방법의 하나인 간호과정은 간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화한 틀을 제공하며[3] 대상자 간호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간호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4].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간호대학생이 졸업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로서 학습성과의 하나로 간호과정을 제시하고 있다[5].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자료의 확인, 분류 및 간호진단 결정에 미숙함이 있고[6-7], 임상현장의 간호사도 대상자의 문제에 대한 간호사정, 수행 및 평가가 미흡하여 간호과정을 정확하고 능숙하게 적용하지 못하며[8-9] 간호과정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따라서 직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간호과정 자신감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과정의 순차적, 논리적 적용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0-11].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개인적 특성, 습관, 태도 및 정서적 성향으로[11],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의도적인 자세를 의미한다[12].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 교육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학습방법으로[13] 문제해결능력과 연관된 중요한 역량이다[1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14-15]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에 책임을 지고 학습하는 능력이 있을 때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므로, 간호대상자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과정 교육을 향상할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과정 자신감을 확인하고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간호과정 자신감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신감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간호과정 자신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과정 자신감 간의 관계 및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J도 소재 일개 대학에서 간호과정 과목을 이수한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Kim과 Seong[17]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의 표본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 .80 예측요인 9개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114명이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배부된 137부 중 133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부실한 4부를 제외한 129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 2.3 연구 도구

#### 2.3.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Lee 등[18]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 등의 3개 영역 총 4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18]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2.3.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19]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지적열정, 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등의 7개 영역 총 27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19]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 2.3.3 간호과정 자신감

간호과정 자신감은 Kwon[2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과정 지식, 간호과정 적용, 간호과정 기록, 증상구분, 징후구분, 관련요인 구분, 간호과정 단계 연계, 협력, 간호 일관성 등의 9개 영역 총 37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과정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20]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 2.4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C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4348-20170303-HR-002-04)을 받은 후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30까지 수집되었다.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수집된 자료의 비밀유지, 연구 참여의 철회 권리,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신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신감과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중 여학생이 97명(75.2%), 남학생이 32명(24.8%)이었고, 평균 연령은  $21.68 \pm 2.03$ 세 이었다. 입학 동기는 '높은 취업'이 70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수준은 '중'이 83명(64.3%)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 생활 만족도는 '만족' 61명(47.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공 만족도는 '만족' 72명(55.8%), 수업 만족도는 '만족' 105명(81.4%)이 가장 높았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9)

Variable	Categories	n(%) or Mean $\pm$ SD
Gender	Male	32 (24.8)
	Female	97 (75.2)
Age		21.68 $\pm$ 2.03
Motivation for nursing	High employment	70 (54.2)
	Recommendation	31 (24.0)
	Voluntary	14 (10.9)
Academic achievement	Service	14 (10.9)
	High	19 (14.7)
	Medium	83 (64.3)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Low	27 (21.0)
	Satisfaction	61 (47.3)
	Moderate	51 (39.5)
Satisfaction of major	Non-satisfaction	17 (13.2)
	Satisfaction	72 (55.8)
	Moderate	43 (33.3)
Satisfaction of class	Non-satisfaction	14 (10.9)
	Satisfaction	105 (81.4)
	Moderate	20 (15.5)
	Non-satisfaction	4 (3.1)

### 3.2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신감 정도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5  $\pm$  .481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는 학습실행이 3.53  $\pm$  .4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55  $\pm$  .392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에서는 객관성이 3.98±.5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과정 자신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68±.516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에서 징후구분이 3.96±.614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과정 적용이 3.54±.6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ubjects'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N=129)

Variable	Categories	Mean±S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otal	3.45±.481
	Learning plan	3.35±.546
	Learning practice	3.53±.488
	Learning evaluation	3.18±.5.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otal	3.55±.392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45±.594
	Prudence	3.31±.555
	Self confidence	3.39±.540
	Systematicity	3.24±.648
	Intellectual fairness	3.97±.500
	Healthy skepticism	3.59±.509
Nursing process confidence	Objectivity	3.98±.577
	Total	3.68±.516
	Knowledge	3.69±.638
	Performance	3.54±.615
	Record	3.77±.630
	Discriminating among symptom	3.79±.661
	Discriminating among signs	3.96±.614
	Discriminating among related factors	3.65±.687
	Linkages of phases	3.57±.688
	Collaborative consistency	3.55±.660
	Nursing consistency	3.59±.682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신감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업 수준이 높은 학생이 학업수준이 중간이나 낮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17.95, p<.001),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유의하게 높았으며(F=4.78, p=.010),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13.79, p<.001), 수업에 만족하는 학생이 보통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6.08, p=.003).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업 수준이 높은 학생이 학업수준이 중간이나 낮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10.46, p<.001),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03, p=.020). 수업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3.57, p=.031) 사후검정결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호과정 자신감은 학업수준이 높은 학생이 중간이나 낮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9.91, p<.001), 대 학생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7.93, p=.001),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15.50, p<.001), 수업에 만족하는 학생이 보통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8.83, p<.001)(Table 3).

Table 3. Difference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9)

Variable	Categorie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cess confidenc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43±.472	-.88 (.378)		3.51±.392	.02(0.25)		3.68±.526	-.15 (.881)	
	Female	3.52±.509			3.69±.365			3.69±.492		
Motivation for nursing	High employment	3.34±.363	1.44 (.232)		3.55±.331	.92 (.433)		3.60±.534	1.95 (.125)	
	Recommendation	3.45±.533			3.52±.416			3.66±.495		
	Voluntary	3.64±.419			3.70±.409			3.98±.567		
	Service	3.59±.425			3.61±.375			3.67±.475		
Academic achievement	High <sup>a</sup>	3.92±.401	17.95 (<.001)	a)b,c	3.88±.329	10.46 (<.001)	a)b,c	4.03±.567	9.91 (<.001)	a)b>c
	Medium <sup>b</sup>	3.44±.413			3.53±.356			3.69±.471		
	Low <sup>c</sup>	3.15±.486			3.39±.414			3.39±.458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sup>a</sup>	3.56±.463	4.78 (.010)	a)c	3.59±.366	1.34 (.263)		3.84±.504	7.93 (.001)	a)b,c
	Moderate <sup>b</sup>	3.41±.406			3.55±.350			3.60±.431		
	Non-satisfaction <sup>c</sup>	3.18±.633			3.42±.561			3.35±.596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sup>a</sup>	3.62±.450	13.79 (<.001)	a)b,c	3.63±.381	4.03 (.020)	a)c	3.87±.510	15.50 (<.001)	a)b,c
	Moderate <sup>b</sup>	3.31±.388			3.50±.332			3.50±.387		
	Non-satisfaction <sup>c</sup>	3.03±.528			3.34±.519			3.24±.446		
Satisfaction of class	Satisfaction <sup>a</sup>	3.52±.469	6.08 (.003)	a)b	3.60±.370	3.57 (.031)		3.77±.506	8.83 (<.001)	a)b
	Moderate <sup>b</sup>	3.18±.464			3.37±.472			3.30±.414		
	Non-satisfaction <sup>c</sup>	3.05±.130			3.32±.199			3.32±.112		

### 3.4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신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간호과정 자신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r=.572, p<.001$ ), 비판적 사고성향( $r=.488, p<.001$ )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N=129)

Variable	Nursing process confidence	
	r	p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572	<.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88	<.001

### 3.5 대상자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업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수업 만족도를 회귀식에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수업 만족도는 Dummy 변수로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 지수는 1.02~2.35로 모두 10이하, 공차한계는 .42~.97로 0.1이상으로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잔차 정규성은 Dubin-Watson 통계량이 2.03으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61.86, p<.001$ ), 유의한 예측인자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beta=.614, p<.001$ )이며, 설명력은 32.2%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cess confidence (N=129)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1.565	.272		5.750	<.00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614	.078	.572	7.866	<.001

$R^2=.328, Adj. R^2=.322, F=61.86(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신감 정도를 알아보고 간호과정 자신감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과정 교육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Ha[21]의 연구에서 3.38점,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과 Shim[22]의 연구에서 3.34점으로 나타난 것보다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과정 교과목 수업에서 그룹활동을 통해 임상사례분석과 간호과정 적용 과제를 수행해보도록 하였는데 개인이 아닌 그룹을 통해 소속감을 높여주는 지지적인 학습 환경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23]가 의미하는 바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그룹 활동을 활용한 사례기반학습의 교육효과에 대해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영역으로는 학습실행 3.53점이 가장 높았고 학습평가 3.1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Ha[21]의 연구에서는 학습실행이 높고 학습계획이 낮게 나타났으며, Kim과 Shim[22]의 연구에서는 학습실행이 높고 학습계획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학습실행에 비해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도출하는 학습평가가 낮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습자에게 반성적 자기성찰 과정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학습내용 정리와 복습, 학습과정 및 학업성취와 관련된 자신의 잠재력과 한계점을 검토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24] 학습평가를 통한 인지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업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수업 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전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Park과 Jeong[25]의 연구 결과와 학업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Park과 Bang[2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학업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수업 만족도가 좋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았으므로 이에 간호학생들의 학업 흥미와 전공 만족도, 수업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으로 간호

학과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27]에서 3.44점의 결과보다는 높았으나,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3.57점의 결과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28]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 번의 교육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을 도모해야겠다[29].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 영역으로는 객관성이 3.98점으로 높지만 체계성이 3.24점으로 낮아, 선행연구[15, 28]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객관성은 높으나 논리적 일관성인 체계성이 낮음을 의미하며, 체계성이 낮은 이유는 임상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 간호지식이나 기술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경험이 부족하여[1], 문제에 대해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한 암기식보다는 논리적 사고를 함양시키고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업수준, 전공 만족도, 수업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전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Lee 등[30]의 연구와 학업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Lee와 Chung[31]의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성적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업을 성취하는 데 적극적이며, 지식에 대한 열정, 자신감을 느끼고 학습에 임할 가능성이 크며[30] 이러한 태도는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인 지적열정과 자신감 개념과 일맥상통하여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과정 자신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68점으로 같은 간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32]에서 2.85점의 결과보다는 높았으나,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효과를 살펴본 연구[10]에서 4.15점으로 나타난 것 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학년 및 교육수준, 교육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2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32]보다 간호과정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의 경우 간호과정 교과목에서 간호과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한 후 임상사례를 재구성한 상황을 사례로 제시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해보도록 하는 수업방식을 적용받았는데 이러한 교수법의 효과로 유추해볼 수 있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Kim과 Park[10]의 연구에서 간호과정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문제중심학습과 시뮬레이션을 통합한 실습

에서 간호과정의 반복 연습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과정 자신감은 학업수준, 대학생 만족도, 전공 만족도, 수업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대학생 활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방안에 관심을 두고 학생지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간호과정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과정 자신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으로 설명력은 32.2%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간호과정 자신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14] 결과적으로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과정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교수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교과목 운영방법으로 사례를 제시하여 간호과정에 적용한 방법에 대한 전후 효과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간호과정 교과목 운영 후 수업개선을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사례를 통해 조원끼리 간호과정을 적용해볼 수 있는 시간', '흥미 있었음',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 수정할 수 있었음', '사례를 통해 이해가 쉬웠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생각 하면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었음'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고려해 볼 때 간호과정 교육에서 사례를 적용한 교육방법이 간호과정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일 지역 일개 간호대학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으로 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가해야 하며, 직접적으로 사례 적용의 효과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이며, 간호과정 자신감에 대한 설명력은 32.2%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과정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증진에 근거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며, 사례를 적용한 교육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과정 자신감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변인을 규명하고, 추후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M. S. Kim,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3, No. 2, pp. 184-193, 2017.  
DOI: <http://dx.doi.org/10.5977/ikasne.2017.23.2.184>
- [2] J. S. Kim, I. S. Ko, "The effects of learning styles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4, pp. 462-472, 2016.  
DOI: <http://dx.doi.org/10.5977/ikasne.2016.22.4.462>
- [3] M. Doenges, M. Moorhouse, Application of Nursing Process and Nursing Diagnosis(4th ed). Philadelphia. PA: FA Davis, 2003.
- [4] M. B. Killeen, "Comfort management as a proposed NIC, and validation of three NOCs for end-of-life and chronically ill 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Knowledge*, Vol. 14, No. 4, pp. 19, 2003.  
DOI: <http://dx.doi.org/10.1111/i.1744-61>
- [5]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Standard Book. p 1-55,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Publishers, 2017.
- [6] H. J. Lee, "Effects of problem based learning using mind map on nursing process of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 12, No. 1, pp. 119-126, 2017.
- [7] H. Cho, H. S. Hong, H. S. Kim,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process based on mobile application",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4, No. 9, pp. 1190-1201, 2011.  
DOI: <http://dx.doi.org/10.9717/kmms.2011.14.9.1190>
- [8] Y. J. Yi, "Comparison of effects of nursing process reeducation according to academic credit bank system student nurses' clinical experience: expertis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5, No. 2, pp. 275-283, 2009.
- [9] E.Törnvall, L. K. Wahren, S. Wilhelmsson, "Advancing nursing documentation—An intervention study using patients with leg ulcer as an ex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Vol. 78, No. 9, pp. 605-617, 2009.  
DOI: <https://doi.org/10.1016/j.ijmedinf.2009.04.002>
- [10] S. H. Kim, I. S. Park, "Effects of simulation practice by applying problem based learning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process and self-confidence of nursing proc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Vol. 3, No. 2, pp. 1-11, 2015.
- [11] E. H. Lee, Y. J. Kim, J. W. Ahn, Y. S. Choi, Y. J. Ko, Critical Thinking-Based Nursing Process. p1-331, Komoonsa Publishers, 2019.
- [12] Y. K. Lee, "College education factor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20, pp. 1095-1121, 2018.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8.18.20.1095>
- [13] Y. C. Kim, E. C. Lee, "An effect of blended action learning program on the self directed learning skill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1, pp. 658-671,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11.658>
- [14] M. J. Sim, H. S. Oh,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6, pp. 328-337,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6.328>
- [15] D. H. Kim, J. Y. Park, N. Y. Le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3, pp. 1551-1563, 2012.
- [16] M. S. Kwo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87-394,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387>
- [17] I. K. Kim, J. A. Seong, "Learning style,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621-4631,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621>
- [18] S. J. Lee, Y. K. Jang, H. N. Lee, K. G. Y. Park.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p1-145,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ublishers, 2003.

[19] J. Yu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p 33, 2004.

[20] H. S. Kwon, *Development and Effects of Nursing Process Simulation Scenario*, Ph.D dissertation, Kuungpook University, Daegu, Korea, p21, 2014.

[21] J. Y. Ha, Learning style, "Learning attitud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55-364,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355>

[22] S. O. Kim, M. S. Shim,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32, No. 3, pp. 424-437, 2018.  
DOI: <http://doi.org/10.5932/JKPHN.2018.32.3.424>

[23] T. Levett-Jonse, J. Lathlean, I. Higgins, M. McMillan, "Staff-student relationships and their impact on nursing students' belongingness and learn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5, No. 2, pp. 316-324, 2009.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8.04865.x>

[24] S. J. Song, "The effect of reflective activity on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religious prospective teacher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Vol. 35, pp. 199-227, 2012.

[25] H. S. Park, K. S. Jeong,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 549-557,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549>

[26] J. W. Park, K. S. Bang, "Learning style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7, No. 1, pp. 36-42, 2010

[27] M. Y. Kim, E. K. Byun,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learning motivation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 pp. 376-383, 2019.  
DOI: <http://doi.org/10.5762/KAIS.2019.20.1.376>

[28] S. K. Chau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8, No. 1, pp. 71-78, 2011.

[29] Y. R. Yeom, J. B. Choi, "Effects of the reeducation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clinical stres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confidence in nursing skill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3, pp. 283-293, 201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3.283>

[30] J. Y. Lee, Y. M. Lee, S. Y. Park, M. J. Lee, Y. H. Ju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 606-616,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606>

[31] S. H. Lee, S. E. Chung, "Influencing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2, pp. 340-349,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2.340>

[32] S. H. Yang, I. O. Sim,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eativity, self efficacy and nursing process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5, pp. 612-622, 2016.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5.612>

박 창 승(Chang Seung Park)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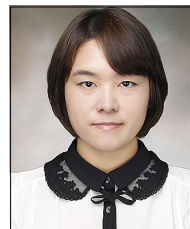
- 1996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3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건강증진

고 영 주(Yeong Ju Ko)

[정회원]



- 2012년 8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9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도구 개발